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6월 9일(금)
(음력 5월 15일)

Пятница

9 июня 2017 г.

№ 22(11673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의 날 기념 준비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날 대중 문화 및 스포츠 행사들이 섬지역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서 펼쳐진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시 광장들을 비롯해 여러 현장에서 행사들이 진행된다.

아침 10시에는 주중앙도시 레닌광장에서 집회가 조성되고 <우리가 러시아다!>라는 공연이 펼쳐진다. 12시에는 '명절 '자전 거 퍼레이드'가 출발하고 레닌광장에서는 이날 하루 현지 생산자들이 여는 시장 박람회도 열린다.

10시부터 21시까지 승리광장에서는 특수 공공기계 전시회, 10시부터 19시까지 영예광장에서는 옛날 자동차와 대조국전쟁시기의 기계 및 기기 전시, 10시부터 18시반까지는 청년들을 위한 <나의 러시아>란 도전게임, <옥차브리>영화관에서는 '극지' 다큐 필름을 상영, 영화관 앞마당에서 대학생들의 공연, <사할린 섬> 체호프 책 박물관에서는 사할린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의 경험과 프로젝트 소개, 주정부 앞마당에서는 롤러스케이트와 길거리 농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현장과 힙합의 무대도 마련되고, 낮 12시부터 가가린 휴식공원에서도 명절 행사들이 펼쳐진다. 저녁 7시에는 레닌광장에서 열리는 <러시아 청년연합> 콘서트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사할린 1세 동포, 한국에서 2차 무료 진료

6월 8일(목) 사할린 동포 1세 25명이 가족보호자의 인솔로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 재외동포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인요한)은 2016년부터 사할린잔류 1세대 동포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하고 있다. 사할린동포들은 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1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시작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동안 진료를 받은 후 귀국할 예정이다.

진료 받을 1세들과 사할린주노인회 김홍지 회장이 동행했다.

사할린주정부 모스크바국립대와 협력 예정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는 로모노소프 명칭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워토르 사도브니치 총장과 만나 도서지역 대학 교수들의 자질향상을 비롯한 문제들을 논의한 후 모스크바국립대와 사할린국립대 간의 협력하기로 했다.

1755년에 설립된 모스크바국립대는 러시아의 최우수 대학으로서 세계 우수 대학 중 하나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질적으로 향상된 대학생들을 배출시킬 대학과의 이와 같은 협력관계가 도서지역으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에 따른 협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바, 양측은 모스크바 교수들이 현지 대학에서 강의, 사할린국립대 최고 대학생 3학년 이후 모스크바국립대에서 교육을 받기, 사할린의 대학 교수들은 모스크바국립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사할린 방문

지난 6일(화) 러시아연방 노동사회정책부 막심 토필린 장관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그는 극동의 모든 지역대표들과 인구정책에 관한 영상회의를 가졌다. 장관에 따르면 사할린주를 회의 진행장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사할린주가 인구에 대한 지표가 극동지역에서 가장 높고 다자녀가족 지원책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출산지원프로그램이 높다고 토필린 장관은 강조하며 가족의 주택 보장에 대한 프로그램과 출산과 관련된 금융의 대출상환 프로그램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서 사할린주 코제마코 주지사는 도서지역 정부는 대학생가족을 위한 장학금 인상문제와 주택 임대 문제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토필린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공사 현장도 찾았다. 안톤 자이체브 사할린주정부 부수상 대행과 동행하여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현재 공사 중인 불니츠나야와 콤포몰스카야 사거리 근처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방문했다. 건물 총면적은 1만1500평방미터로 센터는 1층부터 4층까지의 7개 블록으로 이어져 있고 리프트도 설치할 계획이다. 재활센터에는 1-2인실의 입원실, 식물원, 물리치료, 단련실, 독서방 등으로 채워지고 각종 회복을 위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며 센터에는 최신 의료, 재활, 기술 장비가 설치될 전망이다.

새 재활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관은 <프레오몰레니예(극복)>청소년장애인재활센터를 찾았다. 이 센터에는 549명의 장애아들이 등록돼 있어 매일 이 센터에서는 아동 45명이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이들을 위한 필요한 장비도 마련돼 있다. 현재 이 센터는 주변 지역에서 재활치료에 있어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정책으로 코제마코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타도시에서 방문하는 아동들을 위해 센터를 확대하여 본 센터 외에 피즈쿨투르나야 거리에 또 하나의 건물 건축에 착수했다.

(주정부 자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7회 러시아-한국-CIS 과학기술국제컨퍼런스 개최

6월 15-17일 3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인문기술대학(전 유즈노사할린스크경제법률정보대학)에서 제17회 러시아-한국-독립국가연합(CIS) 과학기술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5년 8월 31일-9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경제법률정보대학에서 개최된 <러시아와 대한민국: 역사적 측면과 현대의 도전>국제과학실용 컨퍼런스에서 러시아와 대한민국 학자들이 시작한 과학적 소통의 연속성으로 과학기구조직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 내에 지역 잠재력의 과학적 혁신의 지속적 발전이 그 목적이다. 대회에는 러시아, 한국, 독립국가연합 나라들의 연구가들이 참가하고 물리와 수학,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에너지와 전기공학, 역학, 기계공학 및 장비, 설계학과 건설화학, 해양학, 사회과학 등 분야의 연구를 논의할 계획이다. 컨퍼런스는 6월 15일 아침 10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개막된다. 섹션별 활동은 15일 오후 2시 50분, 다음 날 아침 10시부터 사할린인문기술대학 강의실들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섹션, 세미나, 좌담회 등, 행사 중 16일 13시부터 한 섹션에서 진 올리아 사할린 연구가는 <민족 정체성과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한인 2세 조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로봇에 대한 마스터클래스(16일 15시 30분부터)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도 호기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러시아고려인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 사할린인문기술대학, 재러한인과학기술자협회, <진보>우즈베키스탄과학기술자협회, <과학>카자흐스탄과학기술자협회의 주최·주관으로 이뤄지며 컨퍼런스에 희망자들은 참여가 가능하다.

새고려신문

2017년 하반기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하반기(7-12월)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모스크바에서 발간되는 <러시이스키에 코레이치>(러시아의 한민족)>월간지가 지난 5월 31일 창간 20주년을 기념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 신문사 설립자이며 20년 동안 이 민족지를 이끌고 계신 **첸 알렌젠 세르게 예위츠**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러시이스키에 코레이치>란 신문을 발행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이 신문의 미션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 그 때 모스크바에서 고려인 사회활동이 시작하는 당시에 여론형성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서 신문 발행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었습니니다. 저는 그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있었을 뿐이었고 전문가로서의 저의 경험(언론인으로서 한때 알마티의 <고려일보> 기자로 활동.－기자주)이 러시아 고려인연합회는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신문은 그저 고려인의 생활, 고려인은 국가에 소중한 시민이라는 점, 그들 중 뛰어난 인물들에 대해 소개를 할 뿐이었죠.

－ 민족지를 발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자면 무엇인지요? 특히, 이 신문이 재정상 많은 언론사들이 문을 닫히는 시기에 발

전문적 경험 필요로 민족지를 이끌게 되어

<러시이스키에 코레이치>지 첸 알렌젠 사장(편집장)과의 인터뷰



고 신문이 지속적으로 발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 주신 러시아고려인연합회 리올레그 알렉세예비츠 회장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 <러시이스키에 코레이치>지의 독자들은 어떤 분들인지요?

－ 다른 지역 통신원들과의 협력은 잘 됩니까?

－ 각 지역뉴스,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 제공이 없이는 정보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바로 지역 통신원들과 기자들과 함께 이 정보의그림을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고려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의 리더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 신문사 임직원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동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는 대다수 언론매체의 현대적 경향을 따릅니다. 정직원은 최소로 기사저자들은 무제한으로 합니다. 물론 신문발행을 정직으로 하는 사람에겐 할 일이 너무 많지요. 우선 엘자 바조라(리) 국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활발하고, 매력있고 불임성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 신문의 새로운 저자를 찾아 이들이 신문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이 분장실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신문도 끝모양부터 시작합니다. 디자인과 면 편집은 오랫동안 케르멘 난비토파와 잘 맡고 계십니다. 마리나 세미니히나와 올가 삼부로와 양은 신문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조라 국장과 한국어를 배울 때 교육장에서 만났는데 한국데마에 관심이 많고 글 재주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신문에 많은 기사를 투고합니다. 사실이 여성들은 정직원으로 될 자격이 충분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 신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미래가 이미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신문은 소셜 네트워크하고는 경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과 함께 곧 <러시이스키에 코레이치>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명령이자 곧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 다시 한번 20주년 축하드리고 신문의 무궁한 발전, 애독자의 증가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새고려신문사에도 같은 바람이 두 배 더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참고:

<러시이스키에 코레이치>지의 발행기관은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회장 조 와실리)이다. 배포지역은 러시아연방, 대한민국, 독립국가연합 나라를 비롯 세계 여러 국가로 배포하고 모스크바-서울-모스크바 항공편에서 신문을 볼 수 있다.

신문은 전문가들과 독자들의 기고로 고급 전문적인 출간물이며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독립국가연합 정보공간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신문은 민족 간 조화,와 다민족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고려인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간행물이다. 전 러시아고려인연합회의 기관지로서 신문사는 본 연합회와 공동으로 수많은 의미있는 고려인 행사 주최자로 나서기도 한다. 신문사가 참여하는 행사 중에는 민족 간 관계발전(모스크바 광역시 고려인 주제)에 대한 좌담회, <러시아연방 국가정책 개념 구현> 전 러시아회의 등이다.

<러시이스키에 코레이치>지는 한반도 상태 조정, 대한민국의 제외동포에 대한 법 개정(2001년), 사할린한인들의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여론 형성에 나서기도 했다.

러시아 고려인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신문사는 여러 문제에 관한 다양한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자선행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러시아 미스 고려인> 을 주최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유명한 고려인 문학인, 예술인,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세계도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첫 데뷔를 한 젊은 음악가들과 선수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2006년 첸 알렌젠 편집장은 '러시아연방 명예 문화장인'이란 칭호를 받았다.

신문은 러시아연방 문화부, 지역발전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09년 제2회 <스미로트워즈전국 언론콩쿠르>에서 수상했다.



간을 시작한 것도 궁금합니다.

－ 우리는 처음부터 운이 좋았습니다. 발행인으로 그 당시 러시아 국방부 모스크바 본부로 부임을 받은 차이(최) 블라지미르 일리치 장군이 나섰거든요. 그분은 민족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분들 중 한 분이셨고 사실 많은 사회적 활동을 주도하고 앞장서시는 활동가였습니다. 그리

－ 처음부터 우리 신문의 독자들은 주로 중년 이상의 연령대 분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고려인들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그들은 또 다시 과거로 빠지면서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재능이 많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창의적인 차세대를 보면서 현재에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죠.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
<러시아 지방에서 클래식>

6월 1일에는 2014년에 소도시 주민들의 문화발전의 협력을 목적으로 소도시관광협회가 주도하는 <러시아 지방에서의 클래식>이란 행사가 러시아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들도 전국 문학행사 참가에 합류하게 되었다. 행사 실시에는 주 일반과학도서관 전문가들과 제2리체이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협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외국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체호브의 <사할린 섬>, 도로세위츠의 <사할린(유배지)>, 칸토로위츠의 <사할린의 에세이> 작품의 일부를 낭독했다. 쥘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감상하면서 낭독자들과 청중들은 주변 세계로 여행하는 여행자들처럼 느끼고, 잭 런던의 <일본 앞바다의 태풍>단편소설을 읽으면서 일본해에 폭풍의 목격자가 되기도 하며 안톤 체홉과는 함께 사할린의 여러 곳을 다녀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주중앙도시 시민들이 좀더 문학행사 진행에 대해 잘 알고 유명 러시아 및 외국 작가들의 작품을 음미할 수 있도록 작품 낭독과 함께 오디오방송도 겸했다고

도서관 측은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литературной акции "Классика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1 июня во мно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рошла акция "Классика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инициированная Ассоциацией малых туристских городов в 2014 году в целях содействия культурному развитию жителей малых городов.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участию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акции. Её проведение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и учащиеся лицея №2.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читали отрывки из произведений зарубежных писателей, а также фрагменты из книг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Дорошевича "Сахалин (Каторга)", Канторовича "Сахалинские очерки". Листая страницы романа Жюль Верна "Вокруг света за 80 дней", чтецы и слушатели смогли ощутить себя участниками кругосветн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вчитываясь в строки рассказа Джека Лондона "Тайфун у берегов Японии", стать очевидцами шторма в Японском море, а с Антоном Чеховым побывать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Чтение отрывков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аудиотрансляци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могли узна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й акции и насладиться выразительным чтением произведений изв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исателей,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사할린국립대, 중국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 계획

사할린국립대학교가 중국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 계획이라고 러·중친선단체 대표들이 사할린국립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소식을 전했다.

중국대표사절단은 사할린국립대의 체계와 활동, 국제활동과 교환학생에 대해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었다. 사할린국립대 보리스 미시코브 총장은 특별히 세부적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중국의 교환학생들 8명이 전문교육을 받고 있음을 전하며 이로써 향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친선관계와 공동프로젝트의 실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사할린국립대 홈페이지에서 전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중국 유학생들이 받고 있는 수업 상황을 전달하며 중국대표단은 특히 올 10월 초에 사할린국립대에서 진행될 <메디우스토크(동부언론)> 국제청년미디어포럼 참가 제안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본 대학에서는 미디어프로젝트를 실행할 중국대학생들의 참가도 가능하게 되었다.

러·중친선협회 사무총장 후 추니메이는 협력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데에 사할린국립대와 본 친선협회 간의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한다는 표명을 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단협(한국), 고(故)박노학 회장 홍산 제막식 문제 등으로 정기 회의

지난 2 일(금) 안산 고향마을 복지관 회의실에서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 협의회(사할린단협, 회장 권경석) 제 6 기 제 1 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현재 사할린단협에는 25 지역 회장들이 등록되어 있고, 회의 참석자 명단도 매회 작성하며 회의 소집 8-10 일 전에 e-메일로 통보하고 있다고 사할린 단협 함정자 총무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 월 25 일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있는 고(故)박노학 회장의 홍산 제막식에 관한 보고와 자료 발표, 행사의 동영상을 보며 공가 배정 문제 등을 놓고 심의했다고 알렸다.

제막식에 관한 총화보고를 한 권경석 회장은 고 박노학 선생 홍산 제막식은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거행하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고 박노학 선생 홍상을 제작설치하는 데 대한 결정은 2017년 3월 3일 있는 전국 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고 보고

했다.

박노학 선생은 1943년 일제의 만행으로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58년에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소련에 억류된 사할린 동포의 귀향을 위해 30년간 헌신했다. 1988년3월 대한민국정부는 고 박노학 선생의 공적을 기려 국민훈장 동백상을 추서했다.

사할린단협은 홍산제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여 고 박노학회장유족회에서 250만원을 기부하고 사할린단협에서는 제4기8차 회의 결정에 따라 19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십시일반으로 총 735만원(위 단체 기부금 포함)이 모금되었다. 그중 295만원은 여러 지역 대표자 13명(최정순, 계강자, 인무학, 함정자, 권화영, 송애순 등)이 기부했다.

또한 이날 공가(안산, 서울, 김해, 양주) 배정에 대한 사할린단협 집행부 결정의 보고가 있었다고 사할린단협 측은 전했다.

(본사기자)

부산소식

사할린 한인 청소년 초청 역사문화기행

부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부산에서 제2회 러시아 사할린 청소년 초청 역사문화기행 행사를 개최한다.

역사문화기행에는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10명 등 모두 20명의 한인 4세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이 학생들은 13일 입국해 대전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을 견학한 뒤 대한불교 천태종 광수사에서 1박한 뒤 부산으로 이동한다.

부산의 첫 일정으로 동인고에서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를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이후 해운대해수욕장 방문, 충렬사 전통문화 예절교육, 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국립해양박물관 견학, 요트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주최 측은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건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포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 장래 삶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우리문화역사체험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 7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문화역사체험을 실시했다.

됐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자 산업 유산으로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광명동굴,

며,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영주귀국 사



이번 체험은 한국의 역사적 현장이자 근대화·산업화의 흔적을 둘러보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애국심과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

인천앞바다에서 한강까지 이어진 국내 최초·유일의 경인아라뱃길과 아라마루, 아라폭포 등을 견학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사할린 동포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

할린한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남동사할린센터(논현고잔로211-15 소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남동구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433명 거주하고 있다.

(인천뉴스)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내 귓가엔 한문형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맴돌았다. 이제 더 늙고 병들면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 자녀 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보니 사할린 한인들이 왜 영주귀국을 현대판 고려장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고려의 한인만을 귀국 대상자로 정해놓은 현재의 정책을 따르자면, 자녀와는 부득이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누군들 고국의 땅이 그리집지 않고, 또 어느 누군들 제 핏줄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을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등촌동 아파트를 나오는 길.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지는 해의 붉은 광채가 서쪽하늘을 물들이는 풍광을 지켜보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는 사할린에서 본 것과 꼭 닮은 저 노을빛 아래서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할 거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끔거렸다. 내가 비록 그들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다 해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해도….

내 가슴에 고인 이 슬픔을 어찌할까

'이중징용' 피해자 유가족 안명복

안산 고향마을에 들어서면, 뭔가 어느 아파트와는 달라 보인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러시아어로 된 간판과,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어 웅한 놀이터, 그리고 텅 빈 주차장에 이는 마른 바람까지. 고향마을이라는 이름이 지닌 정다운 느낌과 달리 조금은 쓸쓸함이 감도는 풍경을 마주하다 보면, 여기서 살아가는 사할린 한인 분들의 내면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고향마을은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일본이 건설비와 정착지원금을 제공하여 지어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이다. 양국이 이에 합의한 것은 1994년이지만 한국의 아파트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1997년이 되어서야 경기도 안산에 5백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마련하기로 확정됐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00년에 비로소 사할린 동포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이별 후 짧은 만남, 다시 긴 이별

안명복 선생은 부친이 이중징용으로 끌려가면서 졸지에 이산가족이 된 채 평생을 살아온 분으로, 그간의 고된 세월이 그대로 내려앉은 주름진 얼굴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들며, 오래도록 가슴에 삭여온 뜨거운 사연을 끄집어내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안명복 선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료는 대개 '이중징용'과 관련한 글과 기사들이었고, 당신이 직접 가족의 일대기를 집필한 책도 있었다. 자료의 출처가 대부분 일본 문서들인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고 관심도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44년에 시행된 이중징용은 우글레고르스크·삭조르스크 등 사할린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약 14개 탄광에서 조선인 광부 3천여 명을 일본 본토로 다시 징용해 간 사건을 말한다. 그렇게 끌려간 조선인들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큐슈(후쿠오카, 나가사키) 등지에서, 사할린에서 소속되었던 것과 동일한 계열사의 동종 작업에 배치 받아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측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이중징용을 당한 3천 191명 가운데 2천 명의 단신자單身者를 제외한 1천여 명에게는 딸린 가족이 있었고, 그 수가 3천5백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중징용으로 최소한 4천5백여 명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은 셈이다. 졸지에 가족과 이별하게 된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곧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소련군의 점령으로 사할린 해안선이 봉쇄되면서, 징용된 이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그 이후, 극적으로 사할린에 돌아온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수의 징용자와 그 가족들은 수십 년간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이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안명복 선생도 그중 한 사람으로, 눈물로 얼룩진 사연이 구구절절 길기만 하다.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도착한 사할린. 어린 명복은 그곳에서 자기를 조센징, 조선배추라 놀리며 괴롭히는 일본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할 나이였지만, 먹을 것은 늘 부족했다. 또한 목욕탕(당시엔 목간통이라 했다)에 오십 명씩 들어가 씻어야 할 만큼 생활환경이 열악해 피부병을 달고 살았어도, 병원이나 약국에 갈 형편이 안 되어 자연적으로 낫길 기다려야 했다.

지리지 가난하고 궁핍한 나날이었지만, 안명복 선생은 그 시절을 더없이 행복했던 한 때로 기억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슬픔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게 그 이유. 그러나 어리고 순진한 아이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44년 9월, 아버지가 징용을 당하면서 가족이 또 한 번의 이별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안 선생은 당신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Итак, в прошлой статье мы с вами начал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Но если с Китаем все более-менее ясно – отношения носили характер формального вассалитета и культурного ориентирования, то с другим соседом – Японией – отношения ни в пример были сложнее.

Корейцы издревне относились к Японии как к отдаленной и довольно варварской стране (менее варварской, чем кочевые племена с севера, но и не такой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как более близкие к Китаю «культурному ядру» страны). Оказывало влияние на отнош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их роль в цивилизационном развитии Японии – именно корейские миссионеры и ученые научили японцев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му письму, рисовой культуре и скотоводству, были торговым и культурным мостом между Китаем и Японией. К тому же японцы в корейском сознании прочно ассоциировались с пиратами с острова Цусима, которые в раннее средневековье часто совершали грабительские набеги на южное и восточное побережье Кореи.

Однако в конце XVI в. отнош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вышли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 между ними разразилась настоящая кровопролитная война. Связана она была с амбициозными планами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я Хидэёси Тоётоми, который, следуя по стопам своего бывшего господина Ода Нобунага, на время объединил Японию и накопил значительные военные силы.

Поскольку сам Хидэёси не имел аристократиче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 был выходцем из крестьян, он не мог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звание сёгуна (военный правитель) и потому получил звание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 кампаку (правитель-регент).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он пытался узаконить свое правление за счет военных триумфов при одновременном снижении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мператора Японии. Некоторые историк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Хидэёси планировал вторжение в Китай, чтобы выполнить миссию Нобунаг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низив риск возможных внутренних бунтов из-за переизбытка самураев и солдат в стране. Историки-рационалисты объясняют это стараниями Хидэёси удалить из Японии потенциально опасных самураев, направив их на штурм мнимого внешнего врага. Другая возможная мотивация Хидэёси заключалась в покорении соседних малых государств (например, Рюкю, Лусон, Тайвань и Корея).

Существует и другая точка зрен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начала конфликта было состояние душевного здоровья Хидэёси: его действия начали становиться неадекватным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о временем опьяненный своими успехами в завоевании Японии Хидэёси постепенно выживал из ума: организовал гарем из 300 наложниц, по преимуществу 12–13-летних девушек, пребывав в постоянной паранойе из-за угроз мятежей и заговоров, сгонял сотни тысяч крестьян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нужных в военном плане крепосте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диктатор потерял связь с реальностью и возомнил себя богом войны Хатиманом. Война стала очередной персональной прихотью воинствующего Тоётоми, которому стало слишком тесно в покорённой Японии. Поражение клана Го-Ходзё в конце 1590 года,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ривело страну ко второму этапу «умиротворения», так как Хидэёси начал подготовку к следующей войне.

Захват островов Сикоку и Кюсю правитель воспринимал как покорение Востока: «Быстрый и грандиозный успех сопровождал моё возвышение, подобно восходящему солнцу, осветив всю землю».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современников, Тоётоми угрожал завоевать все «четыре провинции» Китая: «Я соберу могучую армию и вторгнусь в великую Мин». При этом нужно понимать, что размеры Китая воспринимались в те времена Японией весьма неясно.

В начале марта 1591 года князь (даймё) из Кюсю законч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креплений замка в Нагое, который в планах «Кодзару» был запланирован как центр сбора войск во время похода на Запад. Первым делом он перенёс свою ставку из Осаки на запад, в город Нагоя. В 1592 году Хидэёси направил письмо на Филиппины, требуя дан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при отправлении подобных посланий в Корею и Рюкю.

В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к войне, в начале 1586 года корабли нача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2000 суд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Хидэёси в 1587 году отправил к берегам Южной Коре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ую экспедицию из 26 ударных кораблей. Эта атака дала японцам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ая армия является небоеспособной и не готовой к будущим битвам. В русле дипломатии, Хидэёси пытался показать свои дружественные намерения и попросил прост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оход через коре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для покорения Китая. Однако, корейский ван, опасаясь разорения собственных земель, ему отказал и Тоётоми начал вторжение.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СТОЯЛА ЗАДАЧА – РАССКАЗАТЬ О КОРЕЙЦАХ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в конце мая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осква) отметила свой 20-летний юбилей. Основ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стало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на тему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ские медиа: история,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на которую съехались главные редакторы корейски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МИ России (Уссурийск, Сахалин) и СНГ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масс-медиа,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состоялись гала-концерт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с участием музыкантов и вокалистов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молодежный танцевальный флешмоб.



О газет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рассказывает один из ее создателей и бессменный редактор ЧЕН Валентин Сергеевич.

– Как возникла идея создания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чем видите основную миссию газеты?

В то время на волне начал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Москве газета не могла не появитьс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росто я оказался в нужное время в нужном месте и м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опыт оказался востребован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Тогда перед газетой стояла задача просто рассказать о корейцах: что они есть, что они достойные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что среди них есть выдающиеся люди.

– Из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ли этнической) газеты – дело непросто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самых трудных моментах издания, что бы Вы хотели отметить. Ведь газета начала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тогда, когда многие печатные СМИ закрывались.

– Нам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везло – издателем стал генерал Цай Владимир Ильич,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назначение в Москву в аппара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Он был одним из тех, в ком пробудилось национальн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и 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первопроходцев и родоначальников мно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ициатив. Нельзя не сказать и о рол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Олега Алексеевича Ли, который сделал все, чтобы газеты выходила.

– Если нарисовать портрет читателя РК, то каким он будет?

– Самая читающая аудитория «РК»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 это люди зрелого возраста, чья жизнь – жив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Читая газеты, они словно заново проживают свое прошлое, грустя об ушедшем времени и радуясь настоящему в лице нового талантливого, образованного, креативного поколения.

– Как складыва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 Без региональных новостей, публикаций о том, что там происходит,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картина была бы неполная. Авторы из регионов вмест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создают эту картину.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вязывает нас, естественно, и с лидерами регионов с компактным проживанием корейцев.

– Знаю, что у вас небольшой штат. Можете представить ваших соратников-журналистов?

– Мы следуем современной тенденции подавляющего большинства печатных изданий. Штат – минимальный, авторский актив – безграничный. Конечно, основная нагрузка ложится на тех, кто постоянно занят выпуском.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Эльза Бажора (Ли). Человек-мотор, исключительно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ая, обаятельная, умеющая находить авторов и привязывать их к «РК». Как театр начинается с вешалки, так и газета начинается с внешнего вида. Дизайном и версткой много лет занимается Кермен Надбитова и это у нее получается замечательно! Марина Семенихина и Ольга Самбунова пришли к нам недавно. Они самые активные фрилансер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на курс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Эльзой и оказались в редакции. Девчата настолько увлечены корейской темой и владеют пером, что могли штатно работать в редакции, но, увы, наш бюджет на это не рассчитан. Но не сомневаюсь в одном – увлеченность

Наша справк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обще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ь – журналистский коллектив. Издатель –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транах СНГ и в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мира. Газета является бортовым изданием авиарейсов по маршруту Москва – Сеул – Москва.

Обще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о признанию мног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читателей является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изданием, прочно занявшим свою нишу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России,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транах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Газета вносит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гармонизацию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звит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реди мероприятий, в подготовке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редакция, – круглый стол Московского Дом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 проблемам развити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2002 г. (тем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осковского мегаполиса), Всероссийское совеща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ом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2003 г., Всероссийское совещани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Москва, июнь 2006).

Активно пыталась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лиять на процесс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о таким важным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просам как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несение в 2001 г. поправок во 2-ю статью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пересмотр соглашения о статус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в Южной Кореи (СОФА) в 2002 г., требова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 япон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о компенсации ущерба в связи с их насильственным переселением н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Газета вместе с ООК является инициатором обращени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ведении в 2004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азднованию 140-летия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Особенно большой вклад вносит газета в провед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акций и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дакци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организации в 1999 г.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омощи беженцам из Каракалпакии и Таджикистана в Волгоградскую область. В 2001 г.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мест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Твери организовала автопоезд с вещами, продуктами, предметами домашнего обихода в Мошенский район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 в место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переселенцев-корейцев из бывшего СССР. В 2002 г. провела вместе с ООК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акцию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корейским семья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на Юге России. Газета ведет постоянную работу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мигра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из республик бывшего СССР,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высококласс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аграриями.

Начиная с 2001 года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спонсором конкурсов «Мисс российская кореянка-2000, 2001 и 2005», фестивал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о многих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00-2007 гг. Много внимания было уделено творчеству писателя Анатолия Кима, Юлии Кима, Михаила Пака, Владимира Пу,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и России Людмилы Нам, заслуженным артистам России Валерию Паку, Аните Цой, Марине Цхай, заслуженному деятелю искусств России Нелли 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лауреата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конкурсов и фестивалей.

В редакции сложился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создана широкая корреспондентская сеть авторов в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транах СНГ,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лавному редактору газеты Чену Валентину Сергеевичу в 2006 году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07-2008 гг.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укрепление мира, согласие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Росси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награждена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Мин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и Минрегиона России. В ноябре 2009 г. удостоена звания лауреата Втор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ее освещение темы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их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СМИротворец-2009».

только на пользу их основной профессии.

– Какой Вы видите свою газету в будущем?

– А оно уже стучится к нам в дверь! Бумажным носителям все труднее и труднее выдерживать конкуренцию с социальными сетями. Поэтому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скоро вместе с печатной версией «РК» появится сайт «РК». Это и веление времени, и наше желание.

– Еще раз поздравляем с юбилеем и желаем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цветания, верных читателей, реализации всего задуманного.

– Спасибо, вашему коллективу того же в двойном размере!

Беседовала ВИКТОРИЯ БЯ.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ун Чжэ Ин: Ни один герой, павший за родину, не должен быть забыт

Ни один герой, павший за родину, не должен быть забыт.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во вторник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на церемонии, посвящённой Дню памяти павших в боях за родину.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атриотизма корейцев, без которого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бы нынешней Кореи. Он назвал несправедливым тот факт, что многие борц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и их потомки живут бедно, а многие коллаборационисты и их потомки процветают. Президент обещал ликвидировать эту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повысив размер пособий ветеранам. «Мы должны помнить всех героев и заботиться о них», отметил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в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по поиску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которые всё ещё числя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 звал не забывать о тысяча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ахтёров и медсестер, которые в 60-е годы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работу в Германию. Помогая своей стране зарабатывать валюту,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модер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они тоже проявили патриотизм,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ло про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5 июня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л про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объеме 11 трлн. 200 млрд. вон или 10 млрд. 11 млн. долларов. Из них 3 млрд. 756 млн. долларов пойдут на создание 71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госсекторе, в том числе 12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в полиции и пожарной службе. 15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будет создано за счет поддержк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лодёжи в малом и среднем бизнесе. Если такие компании возьмут на работу трёх молодых сотрудников, то зарплата за третьего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из госбюджета. 1 млрд. 73 млн. долларов выделено на улучшение условий труда, около 2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йдут на стабилизацию условий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центры борьбы с деменцией, а молодым корейца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арендное жильё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порядка 110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оект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ен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7 июня.

Межкорейские обмены на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развиваются

2 июн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ообщили о планах одобрить восемь запросов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проведение контактов с Пхеньяном. Дв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мерены оказать Северу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остальные шесть нацелены на проведение обменов в сфере религии. Об этом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Ли Ю Чжин. По его словам, данные заявк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зицией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меется в виду более гибкий подход к межкорейским контактам, не выходя за рамк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и организации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осле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ей с Севером, будут подавать заявки и на посещ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появится промышленная зона пищевой отрасл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впервые появится промышленная зона пищевой отрасли. Данный проект под названием I-Food Park, в частности,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ён в Инчхо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лан одобрен 5 июня. Зона будет создана на площади в 261.000 кв. метров. Бюджет про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125,4 млн. долларов. В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частный капитал. В зону, как ожидается, войдут около 70 профи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алютные резерв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стигли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Валютные резерв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составили в конце мая 378 млрд 46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 млрд 89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прел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Банке Кореи.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ым. Предыдущая рекордная отметка фиксировалась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 377,7 млрд долларов. Затем из-за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доллара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щался в течение трёх месяцев, начиная с октября. В январе был отмечен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в феврал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снижение, а с марта вновь наметилась тенденция к рост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апрел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ставалась на восьмом месте по объёму валютных резервов после Китая, Японии, Швейцарии,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Тайваня, России и Гонконга.

(RK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НТОК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С 15 по 17 июня 2017 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состоится XV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Ее проведение стало продолжением научного диалога ученых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вшегося 31 августа – 1 сентября 2015 года и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была обозначе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альнейшего а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уществующих механизмов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о-конгрес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родолжения развития науч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гиона в области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и прикла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 этой целью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ую конференцию на Сахалин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ученых из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тран СНГ.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и со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нынешней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аю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

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й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а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АНТОК», Узбекистана «ТИНБО» и Казахстана «КАХАК».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 Физика и математика
-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нанотехнологии
- Энергетика и электротехника
- Механика, машиностроение и приборостроение
- Архитектур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 Химия,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и технологии их обработки
- Биотехнологии, биология, технологии живых систем и океанография
- Науки о земле и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Открытие конференции и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состоитс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т

Мира, 83а). Начало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в 10.00.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в 09.00.

Заседания секций пройдут 15 июня (с 14.50) и 16 июня (с 10.00)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кт, 72).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ит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на тему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ведущая Дин Юлия, к.и.н.). На нем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 проведении анкетирования среди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а секция состоится 16 июня в 13 часов.

Несомненный интерес вызове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борке роботов, который начнет свою работу 16 июня в 15.30.

С программой XV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СахГ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ают, что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е запретили собирать информацию по своей стране

С приходом в Южной Корею к власт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 главной спецслужбе страны -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е (НРС) - начались серьезные реформы. Новый глава НРС Со Хун дал указание "немедленно и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тить сбор какой-либо информации о ситуаци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Организацию ждут и дальнейшие си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парламентом нового директора НРС Со Хуна, тот своим первым же указом распорядился "прекратить люб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целенную на сбор информации 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инистерствах, организациях, агентствах и СМИ". Начальник спецслужбы, ссылаясь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нструкции лидера страны, добавил, что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не будет никому никаких поблажек и исключений".

НРС ранее была уличена в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о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В частности, объектом атаки НРС пять лет назад стал и нынешний лидер Мун Чжэ Ин. Тогда разведка проводила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беды Мун на выборах в 2012 г. С небольшим перевесом в итоге побе-

дила Пак Кын Хе, но теперь Мун все же получил шанс поквитаться за прошлые обиды.

До сих пор в структуре НРС существовали отделы, которые "курировали" различные госструктуры, занимаясь сбором внутренней информации среди них. То же самое касалось даже газет и информантств, религиоз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вузов. При этом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спецслужба уделяла тем, кто славился своими оппозиционными взглядами. Как пообещал директор Со Хун, теперь эта практика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щается, а система "кураторов" от НРС в ведомствах запрещена, сотрудникам спецслужбы теперь также запрещено появляться в госструктурах без крайней служебн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новый начальник спецслужбы распорядился создать и специальный комитет, который займется выработкой стратеги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НРС в средней и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К этой работе привлечены как кадровые сотрудники спецслужбы, так и независимые эксперты.

Подобные меры были далеко не всеми положительно восприняты. Ряд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НРС отмечают, что реформы осла-

бя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е, действующей в Южной Корею. Тем не менее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и его соратник в этом Со Хун, который ранее работал в НРС, не намерены отступать. "Возможно сначала будут какие-то болезненные реформы, но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и неизбежно. Нарушающую законы практику необходимо прекратить", - подчеркнул Мун.

Параллельно с назначением нового директора в руководстве НРС сменились и все тр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я. Если до этого эти позиции во многом были заняты выходцами из армейских кругов, то теперь заместителями директора НРС стал один посол и два кадровых сотрудника спецслужбы. Так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директора НРС,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за сбор информации по КНДР и третьим странам, стал экс-посол Кореи в Пакистане Со Дон Гу, втор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который курирует контрразведку и борьбу с терроризмом - Ким Чжун Хван (ранее глава одного из подразделений НРС), а за техническую разведку на должности 3-го замдиректора теперь находится Ким Сан Гюн, который до этого работал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Сахалинские спецолимпийцы привезли со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стязаний 11 медалей

В Пензе завершилась всероссийская спартакиада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портсмены с нарушением интеллекта — всего 180 человек из 25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Глав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та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каждому спортсмену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бедить,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 равными себе по силам и при хорошей подготовке стать победителем.

На площадках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ельфин" и дворца спорта "Рубин"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боролись за награды в скоростном беге на роликовых коньках, плавании и юнифад-плавании. Уже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соревн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з-

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завоевали медали различных достоинств (золото в скоростном беге на роликовых коньках, два золота в плавании вольным стилем(муж., жен.), серебро в плавании (баттерфляй), а также бронза в скоростном беге).

Второй, третий и четвертый дни сахалинц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тренеров-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ладимира Ополева и Натальи Красулиной продолжили борьбу и результат был получен: еще по одному золоту, серебру и бронзе. Всего спортсмены привезли на Сахалин 11 медалей.

Самым юным спортсменом с Сахалина был Женя Суслов, которому шесть лет,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готовятся ко Дню России

12 июня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тс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регио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и пройдут на центра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города.

В 10.00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остоится митинг и концерт «Россия – это мы!». Здесь же в 12.00 стартует праздничный велопарад.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ярмарка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 10.00-21.00 - выставка специальной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 10.00-19.00 - запись молодежи в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клубы, мобильный призывной пункт, выставка ретроавтомобилей и образцов вооруж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и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 10.00-19.00 - проведение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улич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велоспорт, скейты, ролики, стритболл. Выступление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 стиле хип-хоп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зда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10.00-18.30 - молодежный квест «Моя Россия» стартует на площади у кинозала "Комсомолец";

- 11.00-16.00 -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 участием студентов «Я люблю тебя Россия» на площадке у кинозала «Октябрь»;

- 16.00 - презентация и демонстраци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На краю» в кинозале «Октябрь»;

- 12.00-15.00 - выставка-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ов «Опыт работы победителей-НКО, получивших гра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квере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 19.00 - концерт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ежи"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Праздн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также в парке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В 12.00 здесь начнется концерт «Моя Россия».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екта «ЖКХ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едует реализовать до первого сентября

Такую задачу пере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и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оставила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одна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приоритет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КХ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Он разработан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иума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приоритетным проектам. Проект объединяет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 рамках единой концепц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среды.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будет вестись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 2017 год. Второй - 2018-2022 годы.

Средст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выделяют бюджеты трех уровней -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В част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т федеральную субсидию в 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з областной казны – почти 190 миллионов.

Как долож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Король,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ЖКХ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стали тр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саковский и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ы. С участием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утверждены мест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 2017 год. Каждая из них, кроме ремонта двор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обязательно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иболее посещаемых территорий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например, центральных улиц, площадей, набережных. В итог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веду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четырех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а также трех скверов по у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В Невельске благоустроят шесть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а также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набережную. В Корсакове проведут работы в четырех дворах, обустроят въезд в город и один сквер.

- Все эти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лнить в срок до 1 сентября,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в теплое время года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лодами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 обозначила задачу Вера Щербина. – Приоритет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ЖКХ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находи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этому за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руковод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бласти несут персональ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аботают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борьбе с нелегальным рыбным бизнесом

Этот вопрос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незаконному обороту промыш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ы Щербины. Участниками разговора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ведомст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одно из ведущих мест в России по объему добычи и переработк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В 2016 году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на террито-

рии регион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598 преступлений в этой сфере. Все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незаконный оборот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имеет серьезный масштаб. Ситуация требует четкого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е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оторого подчас не хватает.

Как заметил участвующий в заседани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натолий Макоедов, с помощью одних лишь традиционных постов на дорогах, выставляемых во время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проблему не решить. Необходимо заняться ликвидацией нелегаль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которые скупают браконьерские уловы, выпускают поддельную продукцию неизвестного качества. В этом случае эффект будет гораздо более ощутимым.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Веры Щерби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в недельный срок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незаконного оборота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В дальнейшем,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на их основе будут выработаны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Также комиссия рассмотрела вопрос о результатах информацион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алкоголизма.

Около 60 тысяч заслужен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учат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в связи с юбилеем област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накануне встречи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ы Щербин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епутатских фракц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консультаций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депутатами по вопросам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бюдж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17 год.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ПРФ и «Единой Россия», предлагавшие различные параметры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единовременных выплат отдельным категориям граждан, совместно с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по случаю 70-ле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оказ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жителям, которые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ов.

По общему мнению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 это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достигшие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и имеющие статус «Дети войны» (родившиеся в период с 22 июня 1923 года по 3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а также неработающие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имеют звания «Ветеран труда» и «Ветеран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аждой из категорий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предложен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в размере 2 500 рублей.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житель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ветераном труда и при этом входит в возрастную категорию «Дети войны», он получит 5 000 рублей.

Ожидается,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инициатива будет принят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при этом внесут поправки, содержание которых исполнительная власть уже обсудила со всеми думскими фракциями.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ены объемы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и льготы направляется около 1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у сахалинскую семью в среднегодовом денежном выражении сейчас приходится пособий на 80,9 тысячи рублей, что, к примеру, выше аналогич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2015 года на 25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применяется новый принцип, учитывающи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ритерий адресност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самым нуждающимся в ней категориям граждан.

Ране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умской фракц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было решено увеличить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наиболее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ым работникам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С 1 июля вырастет ежемесячное денежное довольствие младшего персонала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а также сторожей, уборщиц, дворников и других категорий бюджетников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Размер их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увеличится на 10 процентов.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эти цели заложено около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к празднику 9 мая ежегодные денежные выплаты получили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Дети войн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ыло перечислено п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участникам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лицам, награжденным знаком «Жителю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и бывши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 узникам фашизма - п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Детям войны» - по 2 500 рублей.

Сахалин предстоящей зимой примет женскую сборную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На острове пройдут тренир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в преддверии XXIII Олимпийских зимних игр 2018 года в корейском Пхенчхане. Базой для них станет новый лыже-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возведение которого сейчас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портивного объекта учтены требования Союза биатлонистов Росси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ыжных гонок. В частности, обеспечена его доступность – комплекс расположен в городской черте, неподалеку от дворца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в лесном массиве.

Рельеф данной местности позволяет построить лыжные и биатлонные трассы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 километров. Они будут сертифицированы,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спортсмены при проведен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разряд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ервый этап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а завершится в сентябре 2017 года. Подря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задействовала в работах 53 человека и 26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в целом укладывается в график.

- Сейчас ведем работы по планировке лыжных и биатлонных трасс, завозим грунт, устанавливаем водоотводные лотки и обшивку пулеулавливателя, прокладываем кабель и делаем основание для подъездной дороги,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ей Кондратенко, начальник участка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 По нашей оценке сегодня на площадке бетонные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на 95 процентов, планировка территории - на 70 процентов.

Школ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которая будет эксплуатировать новый лыже-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уже получила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комплек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ключая мишенные установки и систему тайминга.

- Для зрителей м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трибуны, за ходом соревнований можно будет следить не только в светлое, но и в темное время суток – вдоль трасс установлено освещение. Отде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 свое распоряжение получит пресса - чтобы вести прямые трансляции с соревнований, - отметил Максим Шибаров,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 Важно, что пользоваться комплексом смогут вс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не только спортсмены-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го лыже-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удут также входить гостиницы, которые построят за счет инвесторов. В них поселят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бывающих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ил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Задействуют комплекс и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зим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География побратим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город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итая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мерен установить такой формат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двумя крупны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центрами северо-востока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 городами Далань и Харбин.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ответственным секретарем Общества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Ху Чуньмэй.

Кита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обывала на Сахалине с двухдневным визитом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Цель поездки – обсудить с властями региона возможнос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сферах. Гости посетил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Визит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подписанного в июне 2016 года Пла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2016-2017 годы между Обще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дружбы, которое возглавляет член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Мезенцев, и Обществом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Чэнь Юаня.

В перечень задач обе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ходит в том числе и налаживание побратим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городами России и Китая. Заключаемые при этом соглашения помогают сторонам укреплять культурные 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связи, а также являются юридической основой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в сфере инвестици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лишь один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имеет побрати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небольшим по меркам Китая городом Яньцз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яв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заключить соглашения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такого формат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и с другими городам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режде всего, расположенными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крупны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центрами Харбином и Даланем. Это будет выгодно обеим сторонам, и, в частности, позволит разви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мены. Интерес туристов-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влекают курортные зоны Даланя с хорошим климатом и теплым морем. Немало туристическ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имеется и в Харбине.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считают, что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о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готовя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въездного туризма на Сахалине.

- Общество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будет активно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налаживанию побратим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город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шей страны. В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бы выбрать в качестве партнеров Харбин и Далань – самые развитые и перспектив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Китая – можно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а Ху Чуньмэй.

По мнению участников диалог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сегодня вышли на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за всю их историю.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остаю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включа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итай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сейчас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основны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ериод с 2010 по 2014 годы объем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увеличился в 1,5 раза. И в 2016, после недолгого периода спада,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вновь начал р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세계한상대회 역대 대회장들이 전하는 성공과 경영철학, 그리고 모국 재외동포재단, '한상(韓商) 세계를 품다' 출간

역대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14명의 성공담과 사회공헌활동, 청년지원 이야기 수록

한민족 자긍심 담은 한상들의 인생·경영 철학… 국내외 기업가들에 귀감 될 것



글로벌한인 경제리더들의 이야기가

한권의 책으로 발간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세계한상대회 역대 대회장들의 도전정신과 성공 스토리, 그리고 거주국에서의 사회공헌활동, 모국 기여에 대한 스토리를 엮은 도서 '한상(韓商) 세계를 품다'를 출간했다.

－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민족의 경제역량을 키워 나가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이다. 지난 200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한상들의 소통의 장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한상(韓商) 세계를 품다'는 역대 대회장 14명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2004년 3차 대회장을 맡았던 **한창우 일본 마루한그룹 회장**부터 올해 10월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의 수장을 맡은 **임도재 가나공화국 글로벌텍엔지니어링 대표**까지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한상의 높아진 위상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한상의 사회공헌과 모국 기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홍명기 미국 듀라코트 회장**(12차 대회장)이나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11차 대회장),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

[우리말로 깨닫다]

실수(失手)에 대하여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한다. 어떤 실수는 금방 만회하기도 하고 어떤 실수는 평생 고치지 못해서 후회로 남는다. 어떤 경우에는 내 실수가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내 실수가 그저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실수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재미있다. 실수(失手)는 손을 놓치는 것이다. 손에서 놓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일부러 놓는 경우야 실수라 할 게 없겠지만 엉겁결에 손에서 미끄러지거나 딴 생각을 하다가 손에서 떨어뜨리면 실수가 된다. 실수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이다.

실수로 무엇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깨지는 물건이 아니거나 비싼 물건이 아니라면 크게 놀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무척 아끼는 물건이거나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면 놀라고 상심하게 된다. 마음에 담아둔 물건이 손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허망함 자체이다. 어떤 경우에는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생생하기에 더 허무하다. 실수가 물건에 대한 거라면 그래도 위로가 된다. 그러나 많은 실수는 사실 사람을 놓치는 데서 일어난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쳐서 영영 다시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깜빡 사랑을 잊어서 한눈을 팔다가 손을 놓친다.

어릴 적 복잡한 사람 속에서 엄마 손을 놓쳐 본 경험을 해 본 사람은 가슴 철렁한 감정을 이해한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도 이해한다. 그럴 때는 눈물도 안 난다. 정신이 없고, 가슴이 쿵쥔거리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된다. 엄마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이 때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제일 현명하다) 겨우 엄마를 다시 만났을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2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대화 Dialog

선생님: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 문학 강좌에서 유명한 한국 소설을 접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과연 한국어 수업에서도 한국 소설을 배워야 할까요?

사사: 저는 한국 문학 작품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어를 접근해 보는 것도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한국 문학 시간에 한국 소설을 한국어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어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올가: 저희들은 지금 러시아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 소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러시아어로 읽을 때 더 많은 분량의 책을 읽을 수 있고 이해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러시아어 번역서가 아니 한국어로 쓰인 소설 책을 읽으면서 작품 감상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지요? 하지만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 한국어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면, 작품 속에 쓰인 유명한 표현이나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한국어로 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국어 실력은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새로 나온 단어 Новые слова

소설-роман; 한국 문학-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접근하다-приближаться; 작품-произведение; 달성하다-добиваться, осуществлять; 감상-оценивать.

문법 Грамматика

Лингвистика. Орфография.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й орфографии. 한글맞춤법

Орфография - правописание, система правил, определяющих единообразие способов передачи речи (слов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форм) на письме. Общественная функция орфографии проявляется в том, что единообразное написание слов, независимо от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и диалект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произношения облегчает пользование письменной речью.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истема орф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авил появилась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Вплоть до начала 20 века корейская речь в основном записывалась по правилу "как слышу - так и пишу". В начале 20 века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ские ученые начали утверждат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здания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орф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авил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и них был и видный научный деятель Чу Си Гён(주시경: 1876~1914). Он, в частности, утверждал, что запись на слух - это неэффективный и ненаучный подход к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Слова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формы должны записываться по единым правилам, основанным на понимании первоначальных форм слов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форма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научная работа, результатом которой стал утвержденный 1933 году Корейским научным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м советом (조선어학회), план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правил корейской орфографии (한글맞춤법 통일안). Этот план стал основным документом, определяющим принципы корейской орфографии, на основании которого проводились дальнейшие языковые реформы. Орф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торыми сейчас пользуют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тверждены в 1988 году.

Первый принцип гласит, что все слов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предложении записываются отдельно друг от друга.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 -(니/는)다(고) 하더라도 - "даже, если говорят (говорить)...", "даже если..."

Примеры:

그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한다.

→ Даже если он говорит, что н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я к этому делу, я не могу верить его словам.

그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먼저 시험을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Пусть говорят, что он хороший человек, но я считаю, что вначале его надо испытать.

다들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 Даже если все против, я все равно не откажусь.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ахГУ планирует принимать больше студентов из Китая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ланирует принимать больше студентов из Китая,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визита в главный островной ву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а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Сейчас в СахГУ получают профессию восемь студентов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делегации из Китая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и о структуре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университета, 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туденческих обменах. Президент СахГУ Борис Мисиков отметил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подобных визитов. Они благотворно влияют на дальнейшие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реализацию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е,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СахГУ.

Преподаватели университета рассказали, как обучаются студенты, приехавшие по обмену из КНР. Особ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у гостей вызвало предложени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олодежном медиафоруме «Медивосток»,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СахГУ в начале октября. В нем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студенты-китайцы,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в сво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медиа-проекты.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Общества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Ху Чуньмэй выразила надежду на продуктив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между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обществом в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환상의 박람회> 개최

6월 1일 전통에 따라 <콤포레츠>영화 공연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환상의 박람회>란 이벤트를 개최했다. 하루종일 진행된 행사들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아침부터 영화관 앞마당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기다리며 즐거운 쿡쿠르, 오락, 시상품, 과학적인 실험, 비누 거품쇼, 아스팔트에서의 그림 쿡쿠르와 어린이 디스코텍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원하는 아동들은 유쾌한 페이스페인팅을 하기도 하며 이와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는 구간이 있어 사진을 찍고 행사장에는 만화영화의 주인공들도 등

장했다.

전례적으로 <환상으로 가는 기점>도 시작되어 마법사는 기점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함께 자기 소원을 마법의 종이에 적고 마법을 걸며 소원을 빌었다. 마지막에는 이 소원을 적은 마법의 종이는 <환상의 포대>로 하늘로 쏘아 올리고 행사장에서 마법사와 함께 아이들은 과자를 나누어 먹었다.

행사는 행사 마당에서만 아니라 영화관 내에서도 펼쳐져 종일 종이접기교실, 요술풍선 만들기교실, <아시아인-유럽인>작업실에서는 어린이센터와 함께 <내 손으로 애니메이션 제작하기>란 마스터클래스가 진행되었다.

물론, 만화영화는 빠질 수가 없었다. 모두에게 깜짝 선물로 이날 <우르핀 지우스>만화영화가 무료로 상영되었다고 <영화레크레이션 연합>홍보실이 전했다.

"Ярмарка фантазий" состоя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 июня по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ККЗ "Комсомолец" организовал "Ярмарку фантазий" —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для детей, который длился весь день и удался на славу.

С утра на площади у кинотеатра детей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стретили ведущие с озорными конкурсами, играми, призами, научными экспериментами, шоу мыльных пузырей, рисунками на асфальте и настоящей детской дискотекой. Лица всех желающих были раскрашены веселым аквагримом. Параллельно работала фотозона, а также площадка была наполнена настоящими героями из мультфильмов.

Традиционно работал "Пункт приема фантазий". Там детвору ждал волшебник. Вместе они фантазировали и мечтали, записав свои желания на волшебные бумажки, а в финале запустили их в небо выстрелом из "Пушки фантазий". Здесь же вместе с волшебником дети угощались сладостями.

Праздник не ограничился только уличной площадкой. Весь день в фойе кинотеатра проход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оригами, твистингу, а мастерская "Европеец-Азиат" совместно с детским центром провела мастер-классы "Создай мультфильм своими руками".

Конечно,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самих мультяшек. Всех ждал сюрприз — бесплатный показ мультфильма "Урфин Джюс и его деревянные солдат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Кинодосуговом объединении".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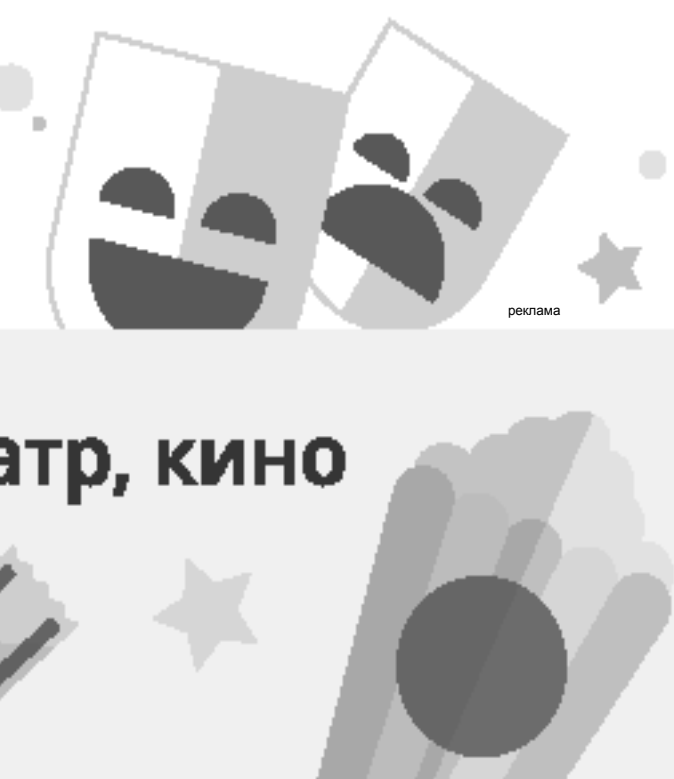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